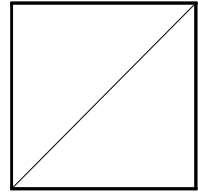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469 호
의 결 연 월 일	2021. 12. 22. (제 23 차)

의
결
사
항

한국산업은행
2022년도 업무계획(안) 승인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고 승 범
제출 연월일	2021. 12. 22.

1. 의결주문

- ☐ 한국산업은행(이하 ‘산업은행’)이 승인 요청한 「2022년도 업무계획(안)」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☐ 한국산업은행법 제22조(업무계획의 승인신청 등)에 따라 산업은행이 요청한 「2022년도 업무계획(안)」을 승인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가. 총 자금공급 계획 : 총 70.0조원

- ☐ ‘21년 계획(66조원)대비 2.0조원(3.0%) 증액하여 총 70.0조원 공급 계획
 - (대출 공급) 64.2조원 공급 (‘21년 61.9조원 → ‘22년 64.2조원, +2.3조원)
 - * 시설자금 19.0조원(+1.0), 운영자금 37.2조원(+0.8), 온렌딩 8.0조원(+0.5)
 - (투자 공급) 5.0조원 공급 (‘21년 5.5조원 → ‘22년 5.0조원, △0.5조원)
 - * 사채인수 2.5조원(△0.5), 주식인수 2.5조원(-)
 - ※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등으로 ‘21.12월말까지 총 82.6조원 (당초 업무계획 68조원 대비 +14.6조원) 공급 예정
 - ※ ‘22년도 코로나19 방역상황, 피해기업 지급·경영회복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, 자금공급계획 확대도 검토

나. 총 자금조달 계획 : 총 70.0조원

- ☐ ‘22년중 산금채(원화) 발행(55.0조원), 외화 차입(7.7조원), 투·융자금 회수(68.6조원), 재정·기금 차입(0.8조원) 등
 - * 산금채 등 상환금 △59.7조원 감안시 총 70.0조원 조달

다. 중점 추진 사항

① 중소·중견기업, 혁신성장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

- 중소·중견기업 지원규모 확대('21년 46.0조원 → '22년 47.0조원)
- 혁신성장부문 지원규모 확대('21년 20.0조원 → '22년 21.0조원)

② 시설·운영자금 등 대출공급 확대 : '21년 61.9조원 → '22년 64.2조원

- (시설자금) 수요증가 전망 등 감안 : '21년 18.0조원 → '22년 19.0조원
- (운영자금) 시설투자에 따른 추가 운영자금 수요 등 감안
: '21년 36.4조원 → '22년 37.2조원
- (온렌딩) 특별온렌딩 확대 등 감안 : '21년 7.5조원 → '22년 8.0조원

③ 회사채·주식인수 지원 : '21년 5.5조원 → '22년 5.0조원

- (회사채 인수) 기업 직접금융 자금조달, 시장안정, 회사채 양극화 해소
: '21년 3.0조원 → '22년 2.5조원
- (주식인수) 모험자본 공급, 신시장 창출 : '21년 2.5조원 → '22년 2.5조원

④ 재정·기금자금 공급 확대 : '21년 0.6조원 → '22년 0.8조원

라. 업무계획의 변경

- ☐ 업무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20% 범위 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승인 없이 변경토록 하고, 2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승인 후 변경

4. 참고사항

가. 한국산업은행 2022년도 업무계획(안) : <붙임 1>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2>

다. 관계부서 협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제23차 안전검토 소위원회(2021.12.17.) 심의필

(별 지)

의 결 주 문

한국산업은행의 「2022년도 업무계획 승인 신청」('21. 12.)에 대해 신청
내용대로 승인한다.

<붙임 1>

2022년도 업무계획(안)

(자금의 공급과 조달에 관한 계획)

2021. 12.

한 국 산 업 은 행

- 목 차 -

I . 2022년 경제 및 금융환경 전망	1
II . 업무계획	4
1. 업무계획 기본방향	4
2. 업무계획 총칙	5
3. 업무계획 운용방향	6
4. 업무계획 규모	7
5. 부문별 자금공급 계획	8
6. 부문별 자금조달 계획	11
< 별첨 > 1. 업무계획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계획	13
2. 2021년도 업무계획 추진실적(예상)	19
3. 관계법규	20

I 2022년 경제 및 금융환경 전망

1. 국내외 경제전망

□ 세계경제

- '22년 세계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신흥국 경기회복, 선진국의 대규모 부양책 등으로 안정적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

* IMF는 '22년 세계 성장률 예상치를 4.4%(‘21.4월) → 4.9%(‘21.10월) 상향

세계 및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

(단위 : %)

구분	세계	선진국	미국	유로존	일본	신흥국	중국	인도	러시아	브라질
2020	△3.1	△4.5	△3.4	△6.3	△4.6	△2.1	2.3	△7.3	△3.0	△4.1
2021 ^e	5.9	5.2	6.0	5.0	2.4	6.4	8.0	9.5	4.7	5.2
2022 ^e	4.9	4.5	5.2	4.3	3.2	5.1	5.6	8.5	2.9	1.5

자료 : IMF World Economic Outlook(2021.10)

□ 국내경제

- 국내경제는 코로나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 민간소비 개선, 수출 증가세 지속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 유지 전망

* '22년 예산(안)에 따르면, 정부 지출은 604.4조원(전년대비 8.3%)

2022년 국내경제 전망

(단위 : %, 억달러)

구분	2020	2021			2022 ^e
		상반기	하반기	연간 ^e	
국내총생산	△0.9	3.9	4.1	4.0	3.1
민간소비	△5.0	2.4	3.4	2.9	3.2
설비투자	7.1	12.6	8.7	10.6	3.0
건설투자	△0.4	△1.5	2.9	0.7	2.9
경상수지	753	443	410	853	750
수출	△5.5	28.0	23.1	26.0	2.0
수입	△7.1	24.7	33.4	28.2	1.9
소비자물가	0.5	1.8	2.7	2.2	1.9
실업률	4.0	4.5	3.4	3.9	3.6

주) 수출과 수입은 통관기준, 경상수지는 금액

자료 : 당행 미래전략개발부 전망

2. 금융환경 전망

□ 국내산업

- '22년중 설비투자 규모는 한국판 뉴딜정책, 신성장·친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 등으로 전년 대비 확대될 전망
- IT부문의 투자 지속, 글로벌 탄소감축 기조에 따른 관련 산업 성장 등으로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

설비투자 BSI 추이



주 : 전망은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
자료 : 한국은행

설비투자규모 추이



주 : 원계열, 실질 기준
자료 : 한국은행

□ 기업금융시장

- '22년 기업대출 성장세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역기저 영향으로 전년대비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, 코로나 이전('18~'19년) 평균 성장률(5.5%)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예상
-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와 함께,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과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에 따른 자금공급 확대 영향
- 기업대출 증감액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2개년 평균치('18~'19년 43.8조원) 대비 확대된 67.4조원을 기록할 전망

기업대출 잔액 및 증감액·증감률 추이 및 전망 (단위 : 조원, %)

구분		'18년	'19년	'20년	'21년 ^e	'22년 ^e
기업대출	잔액	824.1	869.0	976.4	1,052.2	1,119.6
	증감액	42.7	44.9	107.4	75.8	67.4
	증감률(%)	(5.5)	(5.4)	(12.4)	(7.8)	(6.4)
대기업 대출잔액		154.7	152.3	171.8	171.2	180.3
중소기업 대출잔액		669.4	716.7	804.6	881.0	939.3

주 : '21년과 '22년은 당행 미래전략개발부 전망

자료 : 한국은행

□ 금리 전망

- '22년 건조한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, 금융불균형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 유력
- 완화적 금융환경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의 증가 가운데, 과도한 수익추구 성향 강화로 부동산 및 주식 시장 과열,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증
- 예상보다 빠른 글로벌 경기회복세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고, 美연준 테이퍼링 등 주요국들의 긴축 가시화

□ 외환시장전망

- '22년 원/달러 환율은 연평균 1,160원으로 '21년 평균('20.11.17일 기준 잠정치) 1,138.5원 대비 상승 전망
- 美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달러화 강세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,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지속 가능성 등으로 원화 약세압력이 우세할 전망
- 다만 건조한 경기회복세, 수출 호조, 한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는 환율 상승에 대한 방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
Ⅱ 업무계획

1. 업무계획 기본방향

공급 목표	포스트팬데믹 시대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한 완전한 경제회복 및 디지털 전환·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선도형 산업구조 전환 지원		
업무 계획 기본 방향	<div>① 포스트팬데믹 시대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</div> <div>② 탄소중립 이행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견인</div> <div>③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금융지원</div> <div>④ 중장기적 정책금융 수행기반 강화</div>		
경제 금융 환경	세계 경제	<div>○ ‘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5% 수준의 안정적 성장 전망 (IMF)</div> <div>– ’19년 2.8% → ’20년 △3.1% → ’21년(E) 5.9% → ‘22년(E) 4.9%</div> <div>– 신흥국 경기 회복, 선진국의 경제정상화에 따른 소비 개선 등 영향</div>	
	국내 경제	<div>○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소비 및 건설경기 회복 예상</div> <div>– GDP성장률 : ’21년(E) 4.0% → ‘22년(E) 3.1%</div> <div>○ 반도체 중심 IT부문, 신성장·친환경 분야 투자 확대 전망</div> <div>○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, 고용 및 소비회복</div>	
	산업 전망	<div>○ 디지털 전환 및 반도체 중심으로 IT부문 지속 성장 예상</div> <div>○ 전기·수소차 등 미래형 모빌리티, 친환경 관련 산업 유망</div>	
	은행 산업	<div>○ 코로나19 지원 지속, 뉴딜분야 지원 등으로 성장세 지속 전망</div> <div>○ NIM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, ‘21년 비경상 이익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수익성 하락 전망</div>	

2. 업무계획 총칙

가. 다음 기본방향에 따라 2022년도 업무계획이 집행되도록 노력한다.

- 1) 포스트팬데믹 시대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
- 2) 탄소중립 이행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견인
- 3)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금융지원
- 4) 중장기적 정책금융 수행기반 강화

나. 향후 경제동향과 자금조달·공급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항의 기본방향에 따라 업무계획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자금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.

- 1) 업무계획 총액 20% 범위내의 변경은 업무계획 범위내로 보아 별도 승인 없이 변경
- 2) 업무계획 총액 20%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

다. 정부 출자금의 변경, 기금 등 정부시책에 의한 자금조달 또는 공급계획의 조정, 환율변동 등 외부요인에 의한 업무계획의 변경 시에는 사전 변경 없이 집행한다.

3. 업무계획 운용방향

☐ 포스트팬데믹 시대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

-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질서 있는 정상화 지원
- 정부 중점추진분야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
- 한국판뉴딜에 대한 금융지원 및 지원기반 강화

☐ 탄소중립 이행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견인

-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확대
-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
- 선제적 사업재편 금융지원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

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금융지원

-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지원
-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-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

☐ 중장기적 정책금융 수행기반 강화

- 재무건전성 제고 및 안정적 조달기반 구축
- 구조조정기업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여신 사후관리 강화
- 미래지향적 정책금융 프로세스 구축

4. 업무계획 규모

□ 총규모 : 70조원

- 완전한 경제 회복, 디지털 전환·탄소중립 및 미래 선도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해 '21년 계획대비 2조원(2.9%) 증가한 70조원 공급

업무계획 규모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2020년		2021년		2022년 계획
	계획	실적	계획	실적(E)	
공 급 액 ^{주1)}	660,000	910,571	680,000	826,000	700,000
증 가 율	2.3	24.9	3.0	△9.3	2.9
중소·중견 ^{주1)}	450,000	571,526	460,000	553,000	470,000
증 가 율	2.3	19.7	2.2	△3.2	2.2
혁신성장 ^{주2)}	170,000	215,743	200,000	256,000	210,000
증 가 율	17.2	35.7	17.6	18.7	5.0

주1. 온렌딩 포함

2.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 품목 ('20년 300개, '21년 306개)

□ 자금공급 및 조달 계획

(단위 : 억원)

자 금 의 공 급			자 금 의 조 달	
대	출	642,000	자 본 금	7,300
	시 설	190,000	원화산금채	550,000
	운 영	372,000	외화차입	77,019
	온 렌 딩	80,000	(U\$백만)	(6,500)
투	자	50,000	예수금 등	△ 30,469
	사채인수	25,000	투 · 융자금회수	685,504
	주식인수	25,000	제 상환금	△ 597,354
재정 · 기금		8,000	재정 · 기금	8,000
합 계		700,000	합 계	700,000

5. 부문별 자금공급 계획

가. 대출 : 64조 2,000억원

1) 시설자금 : 19조원

- 디지털 전환·탄소중립 및 선제적 사업재편 등 지원 확대
 - '22년 설비투자수요 소폭 증가 전망 등을 감안하여 '21년 계획 대비 1조원(5.6%) 증가한 19조원 수준의 시설자금 지원

시설자금 공급규모 (단위 : 억원, %)					
구 분	2020년		2021년		2022년 계획
	계획	실적	계획	실적(E)	
공 급 액	178,000	227,195	180,000	242,700	190,000
증 가 율	5.3	14.1	1.1	6.8	5.6

2) 운영자금 : 37조 2,000억원

- 포스트코로나 연착륙 지원 및 경제회복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'21년 계획 대비 0.8조원(2.2%) 증가한 37.2조원 공급

운영자금 공급규모 (단위 : 억원, %)					
구 분	2020년		2021년		2022년 계획
	계획	실적	계획	실적(E)	
공 급 액	346,000	478,261	364,000	427,000	372,000
증 가 율	2.2	27.1	5.2	△10.7	2.2

3) 온렌딩 : 8조원

- ESG 분야,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및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온렌딩 공급 확대

온렌딩 공급규모 (단위 : 억원, %)					
구 분	2020년		2021년		2022년 계획
	계획	실적	계획	실적(E)	
공 급 액	75,000	84,043	75,000	91,100	80,000
증 가 율	0.0	10.7	0.0	8.4	6.7

나. 투자 : 5조원

1) 사채인수 : 2조 5,000억원

-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, 금융시장 안정 및 회사채 시장 양극화 해소 등 지원

사채인수 규모 (단위 : 억원, %)					
구 분	2020년		2021년		2022년 계획
	계획	실적	계획	실적(E)	
공 급 액	30,000	59,122	30,000	주1) 31,000	주2) 25,000
증 가 율	0.0	76.0	0.0	△47.6	△16.7

주1) 기업유동성지원기구 및 회사채·CP 지원 프로그램 시행으로 회사채 시장이 조기 안정화됨에 따라 당행 인수규모는 전년대비 대폭 축소
주2) ESG채권 유동화 활성화, 공모채시장 조기 안정화 등을 감안

2) 주식인수 : 2조 5,000억원

- ESG·뉴딜펀드 참여, 혁신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공급 및 신시장 창출 지속 지원

주식인수 규모 (단위 : 억원, %)					
구 분	2020년		2021년		2022년 계획
	계획	실적	계획	실적(E)	
공 급 액	25,000	주1) 54,451	25,000	주2) 28,800	25,000
증 가 율	0.0	41.3	0.0	△47.1	0.0

주1) 기업유동성지원기구(1조원), 한진칼(0.8조원), 채안·증안펀드(0.8조원) 등 거액 비경상투자 3.2조원 포함

주2) 뉴딜펀드(0.5조원), 소부장펀드(0.2조원) 등 거액 비경상투자 0.8조원 포함

다. 재정·기금 : 8,000억원

- 관광진흥개발기금, 에너지합리화기금 등 기금 지원

재정·기금 공급규모 (단위 : 억원, %)					
구 분	2020년		2021년		2022년 계획
	계획	실적	계획	실적(E)	
공 급 액	6,000	7,499	6,000	5,400	8,000
증 가 율	△14.3	18.3	0.0	△28.0	33.3

* 기금대출의 80% 이상 차지하고 있는 관광기금대출의 '22년 예상공급 규모 (6,491억원) 및 타 기금대출 비중을 감안

6. 부문별 자금조달 계획

1) 자본금 : 7,300억원

- 뉴딜펀드 조성(0.6조원) 및 녹색산업 금융지원(0.13조원)을 위한 자본금 증자

2) 원화산금채 : 55조원

- 산금채 상환액, 투·융자 공급 및 회수 규모 등을 감안하여 '21년 대비 1.4조원 감소한 55조원 발행

원화산금채 발행액 및 상환액 (단위 : 억원)			
구 분	2020년	2021년(E)	2022년 계획
발 행 액	569,915	564,298	550,000
상 환 액	431,205	536,997	516,759
잔 액	1,087,524	1,114,825	1,148,066

3) 외화차입 : 7조 7,019억원 (U\$6,500백만)

- 외화차입금 상환 규모, 투·융자금 공급 및 회수 규모 등을 감안하여 U\$6,500백만 조달

외화 수급 예상 (단위 : U\$ 백만)			
외화차입금 상환(A)	투·융자금 공급(B)	투·융자금 회수(C)	외화차입 예상(A+B-C)
6,569	6,125	6,194	6,500

외화차입 및 상환 규모 (단위 : U\$ 백만)			
구 분	2020년	2021년(E)	2022년 계획
외화차입	7,503	7,518	6,500
상 환 액	5,507	5,371	6,569
잔 액	26,110	28,257	28,188

4) 예수금 등 : △3조 469억원

- 거액 법인예수금 인출 등 : △3조 469억원

5) 투·융자금 회수 : 68조 5,504억원

- 대출금 회수 : 64조 655억원
 - 기한연장 및 기한전상환 등 감안

대출금 회수 예상			
			(단위 : 억원)
기일도래액(A)	기한전상환(B)	기한연장(C)	회수예상(A+B-C)
620,658	91,585	71,588	640,655

- 투자금 회수 : 4조 4,849억원
 - 채권 만기회수 등 : 3조 2,754억원
 - 보유주식 매각 등 : 1조 2,095억원

6) 제 상환금 : △59조 7,354억원

- 원화산금채 등 상환 : 51조 9,518억원
- 외화차입금 상환 : 7조 7,836억원(U\$6,569백만)

7) 재정·기금 : 8,000억원

별첨 1

업무계획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계획

- ① 포스트팬데믹 시대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
- ② 탄소중립 이행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견인
- ③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금융지원
- ④ 중장기적 정책금융 수행기반 강화

1. 포스트팬데믹 시대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

□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질서 있는 정상화 지원

- 만기연장 프로그램 종료('22.3월)에 따른 기업의 상환부담 경감
 - 「중소기업 특별상환유예제도」 등을 활용한 피해기업 만기연장 등 지원
- 정책금융 공백 최소화 및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추가 유동성 공급방안 마련
 -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및 기운용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용 등

□ 정부 중점추진분야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

- 유망 신성장분야 중소·중견기업 발굴·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
 - 「중소중견 지원자금」, 「데이터기반 혁신기업 특별자금」 및 「KDB Global Challengers 200 전용자금」 등 활용
 -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앞 M&A, Buy-out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한 사업 영속 지원

- 정부 중점추진분야에 대한 상품 라인업 강화
 - 「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」, 「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」 및 「포스트 코로나 사업재편 붐업 시설자금」 등 기존상품 운용한도 확대
 - 새정부 신정책과제에 부응하는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 마련 등

□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금융지원 및 지원기반 강화

- 코로나 이후 경제 재도약 및 뉴딜 2.0*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금융지원
 - * 추가: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,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, 청년정책 및 격차해소
 - 「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프로그램」 및 「정책형 뉴딜펀드」 등을 활용
- 지자체·대기업·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한국판 뉴딜 공동 지원 체계 구축

2. 탄소중립 이행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견인

□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확대

- 신·재생에너지 및 수소인프라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전환 선도
 - 「KDB탄소넷제로」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친환경 발전·에너지, 수소인프라 등 탄소중립 핵심 기반분야 금융지원 강화
- 온실가스 多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및 신유망 저탄소 산업 육성
 - 「KDB탄소스프레드」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, 이차 전지, 바이오 등 저탄소 신산업 육성
- 녹색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생태계 조성
 - 지속 가능한 생산·소비를 위해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린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저탄소·녹색경제로의 전환 가속화

□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

- 미래 신산업 및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
 - BIG3 등 신성장 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 지원자금」, 「뉴딜 벤처·스케일업 투자」 등을 활용한 혁신기업 스케일업 지원
- 혁신 창업·성장 생태계 활성화 촉진 지원
 - 투자유치·사업연계 등을 활용한 초기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인 「KDB NextOne」 운영 확대
 - 시장형 벤처투자 플랫폼인 「KDB NextRound」 지속 강화 및 국내 최대규모의 혁신성장 Fair 「KDB NextRise」 개최
 -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 벤처·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

□ 선제적 사업재편 금융지원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

- 핵심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디지털·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유망산업 진출기업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
 - 「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」, 「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」,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지원자금」 등 활용
- 사업재편 활성화 및 정부 시책 부응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세스 마련
 - 사업재편 M&A 활성화 제고를 위해 「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」, 「해외 M&A 인수·투자금융 지원 협의체(19.9월 발족)」 등을 활용

3.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금융지원

□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지원

-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한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
 - 「동반성장 지원자금」, 「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대출」 등 활용

□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
- 전통산업의 新산업화 및 지역주력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견인
 - 물류, 폐기물, 미래차 및 5대 서비스 재래산업(고령친화, 패션, 생활밀착, 문화콘텐츠, 공유주거)의 新산업화 지원
- 지방소재 중소·중견기업 및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
 - 「지역경제활성화 지원자금」, 「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」 등 활용

□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

- 지역 밀착형 상생일자리 및 지역균형 뉴딜사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
 - 「일자리창출기업 지원자금」, 「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」 등 활용
-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에 부응한 금융지원 강화
 - 청년일자리 창출 등 청년정책 참여기업을 지원하는 전용상품 등 활용

4. 중장기적 정책금융 수행기반 강화

□ 재무건전성 제고 및 안정적 조달기반 구축

- 수익기반 확대 및 자산건전성 제고로 흑자 달성 등 안정적 재무기반 구축
- 적정 BIS비율 유지로 구조조정 및 정책금융 지원 여력 확보
- 예수금·산금채 조달 안정성 제고 및 低원가 재원 확보를 통한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도모

□ 구조조정기업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여신 사후관리 강화

-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조조정 및 주요 현안기업의 효율적인 정상화 추진
 - 기업구조조정 전문위원 제도 활성화를 통한 구조조정 업무 효율성 제고
- 선제적·예방적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여신건전성 제고
 - 조기경보모형 고도화,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新사후관리 시스템 조기 안착을 통한 여신 사후관리업무 강화

□ 미래지향적 정책금융 프로세스 구축

- 경제·산업환경, 정부정책 등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금융 신규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영업정책 추진계획 수립
- ESG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을 통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적극 부응 및 녹색금융 역량 제고

- Global Network 확충을 통한 시장형 정책금융 역할 확대
 - 프랑크푸르트지점을 신설, 유럽의 녹색금융 Hub로 육성
 -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하여 베트남 하노이지점 개설 및 동남아시아의 성장국가 진출 지속 추진

- 디지털 전환 및 혁신기업 지원체계 강화 등 내부 역량 제고
 - 디지털 기반 영업 인프라 구축, 통합데이터 기반 심사체계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
 - 핵심 신산업 발굴·육성을 위한 'RM-신산업심사' 협력체계 및 리서치 강화

별첨 2

2021년도 업무계획 추진실적 [예상]

1. 자금공급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2021년도		
	계 획	실적(E)	달성률
대 출	619,000	760,800	122.9
시 설	180,000	242,700	134.8
운 영	364,000	427,000	117.3
온 렌 딩	75,000	91,100	121.4
투 자	55,000	59,800	108.7
사채인수	30,000	31,000	103.3
주식인수	25,000	28,800	115.2
재정·기금	6,000	5,400	90.0
합 계	680,000	826,000	121.5

2. 자금조달

(단위 : 억원, %)

구 분	2021년도		
	계 획	실적(E)	달성률
자 본 금	11,208	11,208	100.0
원화산금채	550,000	564,298	102.6
외화차입 (US\$백만)	82,145 (7,000)	89,081 (7,518)	108.4 (107.4)
예수금 등 ^{주)}	6,370	78,234	1,228.2
투·융자금 회수	614,489	682,690	111.1
제 상환금	△590,212	△604,911	102.5
재정·기금	6,000	5,400	90.0
합 계	680,000	826,000	121.5

주) 예수금 증가, 이자·비이자수익 등 기타 현금유입을 통한 자금조달

- '21년말 예상 예수금 잔액 순증 : +4.7조원 ('20년말 45.2 → '21년말 49.9)
- 기타 예상 현금유입 : +3.1조원 (이자·비이자수익 2.2조원, 법인세환급 0.3조원 등)

□ 한국산업은행법

제22조(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)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,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.

③ 한국산업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<붙임 2>

관 계 법 규

□ 한국산업은행법

제22조(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)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,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.

③ 한국산업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산업금융과	-
연 락 처	02-2100-2861	-